울산 문화예술 거점 '만디' 우뚝 서다

지역 복합문화공간 표방 '기대'
지상3층 지하1층 규모 조성돼
성파대종사 작품 미디어아트化
자체 축제 및 전시 계획 추진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12월 23일 태화문화체험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울산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2022년 4월 첫 삽을 뜬지 2년 8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이사장 지선 스님. 백양사 주지)는 12월 23일 태화문화체험관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중구 백양로 62 백양사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5,950㎡(약 18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상 1층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교육관과 전통문화관광 예술전시·체험관, 제2전시관이 들어섰다. 2층은 사무실과 카페 휴게 데크(루프탑), 3층에는 BBS 울산불교방송, 선명상 교육관, 문화교육관, 사무실, 지하 1층은 기전실과 주차장이 갖춰졌다. 특히 명상센터는 명상뿐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은 버슴새의 풍물공연, 백양사 삼보합창단의 음성공양, 소프라노 채미영 공연, 고금 스님의 법고시연이 식전공연으로 펼쳐졌다.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이사장 지선 스님은 환영사에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는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 문화와 예술의 멋이 넘치는 공간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며 "불자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백양사는 울산 시민들과 수많은 지역 불자들의 몸과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 주는 부처님의 도량"이라며 "만디는 앞으로 21세기 복합문화행사를 울산시민이 체험하고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축사에서 "울산시민들이 만디에서 삶의 힘과 마음 건강을 얻길 기원한다"며 "울산시민이 만디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함께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은 "울산시민이 만디를 통해 최상의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불교계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만디는 경상도 말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한다"며 "복합문화공간 만디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안식처와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앞으로 '만디'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선과 예술의 세계를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보여줄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뿐 아니라, 유명 작가 초청전, 지역 청년 기획전, 지역대표 작가전, 아트페어 등을 계획 중이며, 클래식, 대중음악 공연과 북콘서트, 대중 법회·강연 등도 준비하고 있다.

자체 축제도 기획 중이다. 명상·연등축제, 빛의 정원&가든 페스티벌, 맥주-막걸리 축제와 불교박람회, 키즈박람회, 발효박람회, 셀피박람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 '금선백련마을' 새 보금자리 마련

12월 24일, 준공개원법회
의무 · 상담실 등 환경 조성


금선백련마을는 12월 24일 새롭게 마련한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하고 준공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전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금선백련마을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준공법회를 열었다. 금선백련마을은 전주에서 유일하게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금선백련마을(원장 김찬우)는 12월 24일 새롭게 마련한 전주시 완산구로 이전하고 준공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금선백련마을은 2016년 중증장애인과 직원이 생활하던 자림원이 문을 닫자, 전북도와 전주시의 요구로 전주시 평화동에 사회복지법인 송광의 산하시설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장애인과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선백련마을은 전주시 완산구에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대지 2200㎡(665.5평)에 건평 863.22㎡(261평)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해당 건물은 지상 2층으로 1층과 2층에 각 7개의 생활실과 의무실, 상담실, 활동실, 사무실, 자원봉사자실, 직원휴게실, 식당 등을 갖췄다.

이날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해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익산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 남원사 주지 관성 스님 등 금산사 본말사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성규 의원 등 각급 기관장들과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선백련마을 대표이사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은 인사말을 통해 "저와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생활인들이 지내는 동안 부처님이 자비스러운 품 안에서 정답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송광 이사장 도영 스님(금산사 조실)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곳 생활인들은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분들이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에서 대승불교는 '나'가 아닌 남을 위한 불교며,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생활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생활하길 바란다"고 시설 구성원을 축원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인들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주신 독배마을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허당 지성 대종사 27주기 추모재 봉행

조계종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12월 29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태허당 지성 대종사 27주기 추모재와 2024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태허당 지성 대종사 열반 27주기 추모재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법경 스님, 법만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각 말사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이 참석해 태허당 지성 대종사의 유지를 기렸다.

경우 스님은 "스님의 경책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하위하라, 제11회 심우문화상 수상

심우문화재단 시상식 개최
상금 3천만원 스리랑카 후원



국내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 사원이 한국과 다문화 국가 간 불교문화 상호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1회 심우문화상을 받았다.

심우문화재단(이사장 채훈관)은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 스님) 대웅전에서 '제11회 심우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상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채민성 심우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마하위하라 사원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사회의 등불을 밝혔다"며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해 사회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점을 인정해 심사위원 전원의 수상에 찬성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수상소감에서 "한국생활 18년 동안 여러상을 받았지만, 상금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상금은 스리랑카에 도움이 되도록 쓰일 것이다. 내년에는 부처님의 가피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상식 행사에는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 아산 월주산사 공운 스님, 화성 홍법사 성은 스님, 채훈관 심우문화재단 이사장, 노재전 심우문화상 심사위원, 주한스리랑카 부대사를 비롯한 양국 신도들이 함께 했다.

한편, 심우문학상은 심우당 김맹석 이사장이 설립한 심우당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상이다. 심우당문화재단은 남을 이롭게 하면 그 이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00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현재 심우문화상, 장학사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업 스님 "오계 수지로 변화하길"

호국연무사서 수계법회 봉행



650여 훈련장병이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에게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는 12월 28일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을 전계사로 올해 마지막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와 연비의식, 계첩수여와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계를 받은 650여 장병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선업 스님은 "수계를 받게 되면 인생의 나침반이 생겨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증심사 '행복한 피자파티' 개최

12월 28일 지역 아동 대상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자비신행회과 함께 12월 28일 '행복한 피자파티'를 개최했다.〈사진〉

'중현 스님과 함께하는 파자가게' 매월 1회 광주 복지시설과 단체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피자와 먹거리를 선물하는 행사다.

중현 스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 앞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 3기 수료식

12월 23일 경내 교육관서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창원 정인사가 불교대학 3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창원 정인사 불교대학(학장 원행 스님)는 12월 23일 정인사 교육관 4층에서 3기 졸업식을 진행했다.〈사진〉

정인불교대학 학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배우고 실천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비로선원' 첫 삽 뜨다

12월 21일 기공식 개최



창원 정법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비로선원 기공식을 진행했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2월 21일 경내 비로선원 신축부지에서 비로선원 기공식과 비로자나 부처님, 문수·보현보살 조성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정법사의 비로선원은 대지 4929㎡의 부지에 건평 2240㎡규모로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명사, 혜정 스님 주지 진산식 봉행

12월 28일 경내 대웅전서



천안·아산에서 불교마이트리 봉사단을 이끄는 대현당 혜정 스님이 화성 보명사 신임 주지로 취임했다.

화성 보명사는 12월 28일 경내 대웅전에서 '대현당 혜정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사진〉 혜정 스님은 보명사를 수행·전법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으로 신임 주지로 나섰다.

혜정 스님은 "앞으로 보명사를 여법한 수행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연화사 이상률 신도회장 취임



김해 연화사(주지 범일 스님)가 12월 21일 이상률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이상률 신임 연화사 신도회장은 "스님들을 잘 모시고 신행단체들과 힘을 합쳐 연화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화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이상률 회장은 경찰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또한 가야문화진흥원 이사, 상해영상예술대 명예교수, 경찰대학 교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